

고흥군, 가축시장 및 TMF 사료공장 준공식 개최

축산물 유통 기능 확대·한우 브랜드 성장 기틀

고흥군은 가축시장 현대화를 통한 고흥한우의 품질을 강화하고 양질의 TMF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26일 '고흥축협 가축시장 및 TMF 사료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첫 삽을 떠 이번 10월 26일 준공되는 고흥축협 가축시장과 TMF 사료공장은 동강면 한천리 72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천517㎡(부지 1만3천69㎡) 규모의 시설로 8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축산농가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가축시장과 TMF 사료공장은 현대화된 경매시장을 통해 축산물 유통 기능 확대는 물론 관내 생산된 조사료를 활용해 우량한우 육성과 통일된 사양관리로 고흥한우 브랜드의 지속 성장에 기틀

을 마련했다.

송귀근 군수는 인사말에서 고흥 축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김종암 조합장님을 비롯한 축산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고흥 가축시장 및 TMF 사료공장과 함께 축산인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암 조합장은 "국내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가축거래 활성화와 품질 좋은 사료를 생산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가축시장의 연간 거래량은 1만4천두로 예상되며, TMF 사료공장은 연간 2만4천(월 2천톤)여 톤의 양질의 사료가 생산돼 고흥 축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고흥군은 가축시장 현대화를 통한 고흥한우의 품질을 강화하고 양질의 TMF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26일 '고흥축협 가축시장 및 TMF 사료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고흥군 제공

장흥군 정남진도서관 지역작가 문학강좌 운영

장흥군 정남진도서관은 전라남도립도서관 주최로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강좌'는 전라남도립도서관에서 시군 지역작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주최측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을 위로하고 좁아진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강좌 '이대희의 시;특(詩;talk)'은 이대희시인의 시 쓰기 교재 '시특1,2,3'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시작법을 익히고, 실제로 자신의 창작시를 쓸 수 있게 하는 실전 중심의 시 창작 강좌다.

이대희 시인은 장흥출신으로 1994년에 '창작과 비평' 봄호에 시 '제암산을 본다' 외 6편의 시로 등단했다.

문학강좌는 4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19시부터 정남진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정남진도서관 전화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백두연 기자

보성, 다양한 신소득 아열대 작목 육성

애플망고·바나나·파인애플·백향과·용과 등

보성군은 최근 5년간 애플망고를 시작으로 바나나, 파인애플, 백향과 등 다양한 신소득 아열대 작목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보성군에는 애플망고 1.0ha, 바나나 0.3ha로 아열대 단지가 조성돼 있다.

특히, 바나나의 경우 친환경으로 올해 약 40톤 이상의 수확을 앞두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탓에 아열대 작목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아열대 작목으로 작목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들을 비롯해 특히 귀농 귀촌인들을 비롯한 젊은 층의 관심이 뜨겁다.

보성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아열대 작목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실증포를 운영해 파인애플, 애플망고, 백향과,

용과 등 다양한 아열대 작목 실증재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재배기술 확립 및 보급으로 아열대 작목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성공리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보성산 바나나와 애플망고는 7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해 8월 중 본격 출하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바나나의 경우 7천~1만2천 원/kg, 애플망고는 3만~4만 원/kg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권현주 소장은 "농가분들의 지속적인 문의와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애플망고, 백향과를 비롯한 아열대작목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기술 이전뿐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중수 기자

진도군, 코레일 기자단 초청 팸투어 성료

진도군은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자단을 최근 초청해 진도군 주요 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에는 SNS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기자단과 광주전남 관광센터 관계자 등 26명이 참여했다.

진도관광유람선, 명량해상케이블카, 운림산방, 솔비치 호텔&리조트

를 제공해 준 진도군에 감사하다"며 "기회가 되면 진도를 다시 방문해 가보지 못한 다른 관광지도 둘러보고 싶다"고 투어 소감을 밝혔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팸투어를 통해 자연과 체험,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진도군의 특색있는 관광 자원이 전국 각지에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기회에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진도군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해남군, 원숭이두창 방역 대응 강화

해남군보건소는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사회 전파 차단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국내는 지난달 22일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원숭이두창의 감염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마스크 착용 및 개

인위생 수칙(손 씻기 등) 준수,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자제, 방문할 경우 개인 보호구 사용▲야생 동물과의 접촉 자제, 야생고기 취급·섭취에 주의 ▲발생 지역에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전 문의하면 된다.

의심 사례로 접수돼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원숭이두창 국가입원치

완도,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완도군은 최근 생활문화센터에서 청렴도 향상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김세국 전라남도 감사관을 초청해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규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적극행정 기법, 감사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유튜브 '희망 완도' 채널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해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7월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군민 청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